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이수연* · 김인순** · 김지현*** · 김진아****

초 록

한국 남성의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과 고유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를 개발하였다. 문항 개발은 대표적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인 오닐(O'Neil)의 성역할 갈등 척도(GRCS) 37문항, 아이슬러와 스킴도머(Eisler & Skidmore)의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MGRSS) 40문항, 그리고 김지현, 윤진, 박수애 등이 외국에서 개발한 척도들을 번안하거나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의 문항, 그리고 일반 한국인의 경험을 반영한 문항과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진이 만든 문항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발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는 남성 성역할 갈등의 기본적 요인으로 알려진 여성성에 대한 공포와 남성성 이데올로기의 두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요인은 6개로 나타났는데, 이 중 4개 요인은 GRCS와 공통적이고 나머지 2개 요인('가장의무감', '남성우월')은 한국형에만 나타나는 고유한 요인이다. 이 검사를 통해 측정된 남성 성역할 갈등은 우울,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단, 삶의 만족도와도 낮지만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좋은 모형적합도를 보였고 구인동등성 검증을 만족시켰다.

주제어 : 남성, 성역할 갈등, 성역할 갈등검사

* 교신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sy4026@kwidimail.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I. 서론

한국에서 남성은 많은 특권과 혜택을 누리지만 반면에 많은 의무를 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 특권과 의무는 모두 남성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으로 이는 남성 성역할의 일부이다. 성역할은 개인이 타고난 성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역할로서 임무나 활동만이 아니라 성격적, 외모적 속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역할이 부여하는 의무는 때로 과도하여 심리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특히 남성의 성역할은 남성에게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이는 심리적 역기능을 일으키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남성의 성역할과 심리적 역기능과의 관계는 남성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이하 ‘성역할갈등’)을 측정하는 검사들이 개발됨으로서 측정 가능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인 오닐(O’Neil)의 성역할 갈등 검사(Gender Role Conflict Scale, 이후로 GRCS)가 개발된 이후로 남성 성역할 갈등과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수백 건에 달한다(O’Neil, 2008). 이처럼 성역할 갈등 측정 검사는 남성 성역할 갈등 현상과 이것이 남성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데 기여해 왔다.

한국에서도 오닐의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를 적용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런데 오닐의 검사도구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 한국 남성의 성역할 갈등은 GRCS가 개발된 미국의 남성의 갈등과 공통점도 갖지만 서로 다른 문화에 따른 차이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 한국 문화는 유교적 가부장주의, 집단정체성 강조, 체면 중시, 그리고 군대 문화 등 특유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서구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검사로는 측정하기 힘든, 고유한 남성 성역할의 측면이 존재할 것이다. 또 한국은 미국에 비해 남녀의 지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남성에게 기대되는 성역할 규범은 더 엄격할 수 있고 따라서 성역할 갈등도 더 심각할 수 있다. 한국 남성이 성역할에 얽매이고 있는 것은 이들의 감정과 행동의 측면에서 잘 나타난다. 한국 남성들은 가족에 대해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심지어 때로는 적법함의 한도를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런 반면 가족을 위시한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소통하는 데는 아주 서투르다. 감정 표현의 소극성은 술자리 같은 이성 해제의 기회나 성적 욕망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감정 표현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은 남성의 성역할 갈등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한국 남성의 성역할 갈등은 한국적 맥락을 가지며 그 역기능도 한국적 특수성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 남성의 성역할 갈등의 특성과 그 심리적, 사회적 역기능을 찾아내는 것은 젠더 연구의 중요한 과제이고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를 개발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남성 성역할 갈등의 특수성을 찾아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 남성 성역할 갈등을 다른 문화와의 상대적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한국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역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여 남성 성역할 갈등의 심각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를 개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남성의 성역할은 오랫동안 남성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인정되어 왔다. 3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 사회과학에서 남성성을 보는 지배적 시각이었던 ‘성역할 정체성(gender role identity)’ 모델은 바로 남성 성역할의 긍정성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모델은 남성이 “정상적인 남성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남성 성역할 정체성을 개발해야 하고(Pleck, 1981, 210),” 이처럼 성역할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자연스럽거나 필요하다(ibid., 210)”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학문적 조류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개발된 벰(Bem, 1974)의 ‘성역할 목록(Sex Role Inventory)’과 스펜스와 헬리히(Spence & Helmreich, 1978)의 ‘개인속성 질문지(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는 남성성 척도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항목만을 포함시켰으며 그 결과 이 검사를 활용한 대부분의 후속 연구들은 남성성 척도가 긍정적인 속성들과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척도들과 비행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데이트 상대에 대한 심리적 폭력과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는 예외적인 경우이다(Horwitz & White, 1987, Thompsonik 1990; Pleck, 1981, 17에서 재인용).

하지만 80년대를 전후하여 남성 성역할 규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성 역할 정체성 모델이 경험적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그 자체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데 대한(Levant & Pollack, 1995, 2)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 역할 부담 패러다임(gender role strain paradigm)’이 등장하였고 이후에 ‘사회적 구성주의 패러다임(social constructionism paradigm)’도 등장하였다(이수연 외, 2009, 18-21). 남성의 성역할을 보는 혁명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렉의 성 역할 부담 패러다임(Pleck, 1995)은 남성 성 역할의 문제점으로서 ‘성 역할 불일치(gender role discrepancy or incongruity)’, ‘성 역할 정신적 외상(trauma)’ 그리고 ‘성 역할 역기능(gender role dysfunction)’을 제안한다. 즉, 앞에서 언급한 성 역할 정체성 모델의 전제와는 달리 성 역할 규범은 보통의 남성들이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에 적응하려는 사회화 과정은 남성들에게 정신적 외상(trauma)을 남길 수 있고 결국 남성의 심리적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성 역할 부담 패러다임의 이론적 시각에 근거하여 남성 성역할 갈등을 연구한 오닐은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성 역할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정적 결과나 영향을 주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고(O’Neil et als, 1986, 336) “엄격하고 성차별적, 혹은 제한적 성 역할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구속, 평가절하, 혹은 침해를 초래(O’Neil, 2008)”한다고 주장한다. 플렉은 성역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를 성역할은 규범 자체의 모순 및 비현실성과 규범의 시대적 상대성 등으로 들고 있다. 즉, 성역할 규범은 모든 사람의 개인적 속성에 맞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로 심리적으로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대의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반할시 겪게 되는 처벌이 가혹하여 심리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것도

갈등을 높이는 이유로 제시한다. 특히 “성 역할 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남성의 성역할 갈등은 더욱 심각한 사회현상이 될 수 있다(Pleck, 1995, 12)고 주장한다.

한국에서의 남성 성역할 갈등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즉, 남성들은 한국 사회의 성역할 규범이 규정하는 역할에 자신을 한정시킴으로써 시대적 변화에의 적응이 느리고 타인, 특히 여성과의 관계에서 유연하지 못하며 무엇보다 스트레스 같은 자신의 심리적 역기능을 초래하고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국 남성의 남자다움에 대한 집착,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무관심, 관계에 대한 무지, 맹목적인 성공 추구 등의 성역할 갈등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남성의 성역할과 그것이 초래하는 역기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한국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구성하는 요인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남성의 성역할 갈등 연구에 가장 많이 활용된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Gender Role Conflict Scale: GRCS, O'Neil et als., 1986)를 개발한 오닐은 남성 성역할 갈등의 요인을 남성의 보편적 심리구조와 사회의 남성성 이데올로기에서 찾는다. 먼저 남성 성역할 갈등을 일으키는 보편적 남성 심리구조를 “여성성에 대한 공포(ibid., 336)”로 명명하는데 이는 다수의 남성 연구에서 밝혀진 것이다(David & Brannon, 1976; Farrell, 1974; O'Neil, 1981; 1982, ibidl, 337에서 재인용). 이는 고정관념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여성성 가치, 태도, 행동에 대한 강한 부정적 감정을 말하며 이에 따라 자신의 남성성을 여성(성)과의 차이로 증명하려하며 궁극적으로 여성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오닐이 개발한 성역할 갈등 검사의 4개 요인(성공/권력/경쟁, 감정 억제, 일과 가정의 관계, 남성과의 애정 행동 억제) 중 성공/권력/경쟁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요인이 이 여성성에 대한 공포와 관련된 것이다. 남성의 심리구조 외에 사회의 남성성 이데올로기도 남성 성역할 갈등의 요인이 된다. 남성성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전통적 남성성 이데올로기는 남성은 훌륭한 성취를 이루어서 존경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절대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되고, 모험과 위험을 추구하고 필요

하다면 폭력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Brannon & Juni, 1984) 등이 대표적인데 이는 오늘날의 검사에서 성공/권력/경쟁의 요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반면에 오늘날의 검사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아이슬러(Eisler)와 스킴더모어(Skidmore)의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Male Gender Role Stress Scale: MGRSS, 1987)는 5개 요인 중 육체적 열등감, 여성에 복종, 지적 열등감, 수행실태의 4요인이 남성성 이데올로기와 관련되고 감정표현 억제와 관련된 문항만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다.

남성성 이데올로기는 서로 다른 사회에서 성역할 갈등 요인의 차이를 초래하는 요소이다. 여성성에 대한 공포는 성차가 있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남성성의 보편적인 심리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나 적용되는 현상이다. 반면에 남성성 이데올로기는 특정 사회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인다. 한국 사회와 GRCS가 개발된 미국 사회도 남성성 이데올로기에 있어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사회의 남성성 이데올로기는 과도한 편인데 남녀 지위의 차이가 큰 만큼 남성성 이데올로기는 여성과 차별될 수 있는 남성성의 이상성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남성성 이데올로기는 “전통적 요소가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과 일본의 자본주의적 영향을 거쳐 형성된(박노자, 2010, 9)”것이어서 미국의 그것보다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요소를 가질 것이다. 서구에서의 남성 이데올로기의 요소들-강함, 성취, 용감함, 독자성-같은 가치 위에 ‘자기희생, 명예, 의리, 체면 같은 한국적인 요소들이 더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기희생적 자세,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 등이 서구에서의 남성성 이데올로기에서보다 더 강조되는 한국 남성성 이데올로기의 다른 요소들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수행된 남성 성역할 갈등에 대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남성 성역할 갈등 요인은 대부분 남성성 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 있다. 박수애·조은경(2002)은 한국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남성에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남성 성역할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는데 여기서 나타난 요인은 성취지향성, 남성간 의리, 과제 지향성, 주도성, 가정에 대한 책임으로 5개 요인 모두가 남성성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이 연구에서 남성성의 기본전제를 엄격성, 자율성, 성취, 공격성

(O'Neil, 1981, *ibid.*, 83에서 재인용) 등 모두 남성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개념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윤진과 동료들(1987)은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40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요인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이 아이슬러와 스키드모어의 성역할 스트레스척도의 문항과 일치하기 때문에 요인의 대부분이 남성성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김지현과 동료들(2003)은 오닐의 성역할 갈등 척도를 변안하여 한국 실정에 적용한 연구에서 한국 남성의 성역할 갈등 요인을 성공/권력/경쟁, 감정 억제와 남성간 애정 행동 억제, 일과 가족 관계간의 갈등 세 요인으로 추출하여 여성성의 공포와 관련된 요인 두 개와 남성성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요인 한 개를 밝혀내었다.

한국형 남성의 성역할 갈등 검사의 개발을 위해서는 한국 고유의 성역할 갈등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세계 보편적인 '여성성에 대한 공포'요인과 한국 특수적인 남성성 이데올로기 요인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후자인 한국 남성성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한국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검사를 개발하는데 관건이 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문항 개발

1) 목적

한국남성의 고유한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남성의 성역할 특성이 문항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성 성역할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 기반의 문항개발뿐만 아니라 일반 한국인의 경험을 반영한 문항 개발의 두 경로를 활용하였다.

2) 절차

문헌 연구를 통한 문항 개발은 1986년에 개발되어 수백 건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오닐(O'Neil)의 성역할 갈등 척도 37문항, 아이슬러와 스킴모어(Eisler & Skidmore)의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 40문항, 그리고 김지현, 윤진, 박수애 등이 외국에서 개발한 척도들을 번안하거나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의 문항, 그리고 최근 한국남성 연구물에 나타난 한국 남성성 및 남성 성역할 갈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이 직접 문항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반 한국인의 경험을 반영한 문항 개발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생활현장에서 공감하거나 체감하는 남성 성역할 갈등을 적도록 하여 문항 풀을 만들었다. 대학생 40명, 직장인 20명, 공무원 20명, 노인 10명의 총 90명을 대상으로 ‘남성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점’을 짧은 문장으로 자유기술하게 하였다. 자유기술과정에서 연구목적에 맞지 않는 문항 생성을 방지하고 연구목적에 근접한 문장들을 연상할 수 있게 하고자,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생활영역을 제시하고 영역별 대표적인 예문을 2~3개 제시한 뒤 의견을 기술하게 하였다. 기존 검사에서 사용한 문항과 일반인대상 자유기술조사에서 나온 문항을 합하여 총 320개의 문항이 마련되었다.

남성 성역할 갈등의 개념 및 기존 척도, 유사 척도 그리고 한국남성의 특성에 관한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필요한 개념을 숙지한 연구진과 남성 성역할 갈등 도구 개발 경험이 있는 학계전문가와 같이 총 320개 서술문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군복무의 중요성과 가족의 생계에서 남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문장이 많아 통합과 제거를 반복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1차로 85개 문항이 선택되었다. 이렇게 선택된 문항 중에는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역 혹은 번안한 문장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연구진과 전문가들에 의해 내용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번에 걸친 수정 과정을 거쳤다. 이후 전체 85개 문항에 대해 한국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우리 어법에 맞는지, 자연스런 문장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2. 성별 타당도 검토 및 1차 탐색적 요인분석 (예비조사 1)

1) 목적 및 절차

여성의 성역할 갈등과는 구분이 되는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문항들을 선별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남성의 성역할 갈등 검사는 양성 모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검사도구가 아니라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남성 고유의 성역할 갈등 측정을 위해 여성 성역할 갈등과의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 척도의 요인구조를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각 요인을 잘 반영하는 문항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요인별 내적 일치도를 검토하고 내적 일치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2) 조사 대상

이를 위해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자 200명, 성인여자 200명의 총 4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인구비율에 맞게 연령, 지역, 직업에 따라 할당하였다. 이들은 제시된 문항의 내용을 얼마나 경험하는지에 대하여 6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였다.

3. 2차 탐색적 요인분석 (예비조사 2)

1) 목적

1차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요인구조와 선택된 문항의 타당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초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하위척도 간 상관관을 분석했다.

2)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전국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자 800명이다. 조사방법은 1차 예비조사의 직접조사와 달리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CAWI)방식을 택했다.

웹조사 방식이지만 조사회사에 전국 범위의 패널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인구를 연령별, 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맞춰 무작위로 추출했다.

4. 확인적 요인분석 (본조사)

1) 목적 및 분석 방법

최종 선정된 37개 문항의 남성 성역할 갈등 도구에 대해 요인 구조의 안정성 및 문항들의 양호성을 알아보고, 평가도구에 필요한 신뢰도, 변별 타당도, 수렴 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 등을 구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 및 상관 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2)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전국거주 19세 이상 성인남자 1,800명으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을 하여 임의표집 되었다. 무직, 퇴직, 또는 사무직이 과다표집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공식 통계를 통해 산출한 직업통계에 따라 직업별 할당을 적용했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이다.

3) 측정 도구

조사에 사용된 검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는 6개 요인, 37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오닐의 성역할갈등척도(Gender Role Conflict Scale), 아이슬러와 스킵모어의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Male Gender Role Stress Scale)를 참조하였으며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인으로부터 문항을 수집하였다. 응답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일치한다”까지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다.

(2)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한국남성들의 양성평등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양희와 정경아(1999)가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축약형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그동안 외국에서 개발된 성평등 관련 조사를 종합하여 ‘여성과 남성에 대한 능력 및 성격에 대한 고정관념, 젠더역할 고정관념,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권리, 인권, 자유에 대한 태도, 여성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김양희, 정경아, 1999)’을 측정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즉,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 ‘여성에 대한 성차별 태도 척도’, ‘현대적 성차별주의 척도’ 및 ‘신 성차별주의 척도’의 목적을 종합하고 있다. 신뢰도는 남녀에게 실시하였을 때 .95 남성에게만 실시하였을 때 .93이었다. 본 조사에서의 신뢰도는 .92이다.

(3) 한국형 다면 성별 의식 검사

성평등의식과 관련된 검사로서 정확히 말하면 성평등의식의 반대 측면인 성차별의식을 적대적 의식과 온정적 의식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것이다. 안상수 등이 2007년 개발한 24문항짜리 검사로 적대적 의식과 온정적 의식이 각각 12 문항이다. 본 조사에서는 축약형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적대적 성별의식 .86, 온정적 성별의식 .77로 보고되었고 본 조사에서는 각각 .81, .73이다.

(4) 우울 척도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CES-D)를 전점구·이민규(1992)가 한국인에 맞게 수정·보완해서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CES-D는 20문항의 자가-보고형 척도로 지난 1주 동안 경험한 증상의 빈도를 나타낸다. ‘거의 드물게(1일이하)’ 0점, ‘때로(2~3일)’ 1점, ‘상당히(4~5일)’ 2점, ‘대부분(6~7일)’ 3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정상 성인은 9.25점이며, 16점 이상은 우울한 것으로 간주한다. Radloff(197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였고 본 조사에서는 .88이었다.

(5) 자존감 척도

개인의 자아 존중감, 즉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여, 전병재(1974)가 번안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여기서는 긍정, 부정을 합하여 5문항을 사용했다. 4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신뢰도는 원도구 개발 당시 .92였으며, 전병재(1974)가 노인만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을 때는 .62로 보고되었다. 본조사에서는 .70이었다.

(6) 스트레스 척도

스트레스 척도는 이수연 외(2008)가 성인 남성들이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5개 영역-재정, 직장, 건강, 부부/애정 관계, 부모 역할-을 선정하여 각 영역별로 3문항씩, 총15개 문항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재정, 부부관계, 부모역할의 문항은 Lantz, House, Mero & Williams(2005)의 연구를 참조하여 변형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고 해석한다. 각 영역별 스트레스의 신뢰도는 .84, .83, .51, .79, .65로 보고되었고 본 조사에서는 각각 .87, .87, .57, .78, .66이고 스트레스 전체는 .83이다.

(7) 삶의 만족도 척도

Diener 등(1985)이 개발한 5개 문항의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잘 사는 것에 대한 다양한 주관적인 견해들 중에서, 협의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에 초점을 두며 긍정적인 정서나 외로움 같은 개념과는 거리를 둔다. 이 척도의 점수는 잘 사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측정이나 특정 개인의 특성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애초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개발되었으나 다른 연령대의 집단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본 조사에서는 .833의 신뢰도를 보였다.

IV. 결과

1. 1차 문항 선정 및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성별 타당도를 위한 1차 문항 선정과정은 2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는 개별문항의 평균값과 중간값을 비교하였으며 2단계는 요인분석 후 요인가를 검토하였다. 1단계에서는 문항제거 원칙을 1) 남성의 문항 평균점수가 여성의 평균점수보다 더 낮은 경우 2) 남성의 개별문항 평균값이 6점 척도의 중간값인 3.5 보다 낮은 경우로 설정했다. 이 결과 평균값이 중간값보다 낮은 경우는 없었으며, 남성의 문항별 평균값이 여성의 평균값보다 낮은 4개의 문항이 제거되었다.

2단계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구조를 잠정적으로 탐색하고 요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문항선정을 하였다. 1단계를 거친 81개 문항에 대해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고유값이 1이 넘는 요인이 21개였으나 스크리 도표를 검토한 결과 요인수는 6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 수를 6개로 지정하고 직접 오블리민(Oblimin) 방식으로 사교 회전하여 요인가를 보았다. 선정기준은 요인가 0.5 이상이며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동시에 속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 기준에 의해 24개 문항이 제거되어, 2단계에서는 57개 문항으로 축소되었다. 축소된 57문항을 가지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 13개 요인이 나왔으나 이론적 틀과 스크리 도표 검토에 의해 최적 요인수를 6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했다. 이 때 어느 요인에도 속하지 않는 3개의 문항이 나와서, 이를 제거하였고 결과적으로 54개 문항이 되었다. 남은 54개 문항의 요인가를 보고자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고유값이 1이 넘는 요인수가 12개가 나왔다. 스크리 도표 상으로는 요인수가 6개가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요인수를 6개로 지정하고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요인분석하여 요인가를 확인하였다. 각 요인에 속한 모든 문항의 요인가가 모두 0.5 이상이고 요인별 신뢰도도 .738에서 .927로 내적일치도를 만족시켰으며 내적

일치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이 없어 54개 문항 모두를 2차 예비조사에서 사용하였다.

2. 2차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앞의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인 남자 800명으로부터 54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얻어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크리 도표상으로 6개가 적합한 요인수로 판단되었다. 요인수를 6개로 지정하여 직접 오블리민 방식으로 사교 회전하였다. 요인가가 .5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1개의 문항이 제거되었다. 이 결과 남은 문항은 53개로 문항수가 너무 많아 이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요인별로 문항 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차 문항 축소 과정을 진행하였다. 문항 축소의 기준으로 1) 요인별로 최대 문항 수를 8개로 하고 2) 문항 제거는 요인 부하량 크기 순서로 하기로 결정했다.

위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최종 38개 문항의 척도가 구성되었다. 선정된 38개 문항을 가지고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고 요인분석을 해 본 결과 요인가가 1 이상인 요인이 6개가 추출되었다. 그런데 38개 문항 중에서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남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론적 틀에 따라 감정표현 억제제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개발하였고 이제까지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감정표현 억제 요인으로 분류되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감정표현 억제 요인(요인가 .554)에도 속하지만 남성과의 애정표현 억제요인(요인가 .565)에도 속하여 두 요인에 걸쳐 있어 제거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37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문항의 평균은 2.69에서 4.62, 표준편차는 1.04에서 1.40이었다. 왜도는 -.839에서 .495, 첨도는 -.911에서 .670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문항과 요인간 상관은 .328에서 .884, 문항과 전체 검사 사이의 상관은 .364에서 .658 사이였다. 요인 간 상관은 .109에서 .708 사이였다.

최종 37문항의 6개 요인 및 문항의 부하량과 각 요인의 설명변량은 <표 1>과 같다. 6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총 변량은 .602이다. 요인 1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관념을 표현하는 문항들로 구성

되어 있고 ‘남성 우월’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일이나 학업 때문에 가정 생활이나 휴식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일·가정 양립 갈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감정 표현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으로 ‘감정 표현 억제’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성공하고 권력을 획득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욕구로서 ‘성공·권력·경쟁’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다른 남성들과의 친밀함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로 명명하였다. 요인 6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으로 ‘가장의무감’으로 명명하였다.²⁾ 6개 요인 중 요인 2, 3, 5는 여성성에 대한 공포와 관련된 것이고 요인 1, 4, 6은 남성성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것이다.³⁾

〈표 1〉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의 요인 및 문항

하위요인	문항	요인 부하	고유값 (설명변량)
요인 1. 남성우월	여성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850	10.462 (28.276%)
	나보다 더 성공적인 여성과 같이 지내는 것은 불편하다	.841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자존심 상한다	.825	
	게임에서 여성에게 지면 기분이 나쁘다	.801	
	직장에서 여성보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한다	.779	
	여성이 내 상황을 통제하도록 놔두는 것은 남성답지 못하다	.768	
	아내보다 나의 학력, 수입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	.739	
	가사 일을 한다는 것을 친구에게 말하기 어렵다	.681	

2) 여기서 가장의무감은 선행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요인으로서 문항수가 적은 것은 이 문항만으로도 요인을 잘 설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요인명은 ‘남성 우월’과 ‘가장의무감’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채택하였다. 이는 오늘날 연구가 널리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이다. ‘가장의무감’은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요인이고 ‘남성 우월’은 아이슬러와 스킨드모어의 연구에 ‘여성에게 복종’이라는 유사한 요인이 있지만 본 연구 요인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새로 작명하였다.

하위요인	문항	요인 부하	고유값 (설명변량)
요인 2. 일·가정 양립 갈등	나의 일이나 학업이 종종 내 생활의 다른 영역 (가정, 가족, 건강, 여가)을 방해한다	.837	3.330 (9.001%)
	일이나 공부에 대한 성취 욕구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힘들다	.826	
	일이나 공부 때문에 여가 시간이나 가족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810	
	가사와 직장일에서 모두 완벽함을 요구 받아 힘들다	.759	
	느긋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렵다	.726	
	바쁜 일과와 나의 건강관리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	.662	
요인 3. 감정표현 억제	나는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794	2.850 (7.701%)
	나는 애정표현을 하기 힘들다	.752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742	
	재미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다	.700	
	나는 남에게 감정을 보이고 싶지 않다	.689	
	나는 남들의 강렬한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다	.667	
	상대방에게 그(녀)의 말 때문에 속상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609	
요인 4. 성공·권력· 경쟁	다른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힘센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808	2.369 (6.40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다	.783	
	남을 이기는 것은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잣대이다	.775	
	학교나 직장에서의 나의 성취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인다	.724	
	항상 잘 나가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720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이다	.713	
	돈을 버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70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쓴다	.686	

하위요인	문항	요인 부하	고유값 (설명변량)
요인 5.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다른 남성들과 너무 친밀해지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831	1.784 (4.822%)
	다른 남성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이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	-.771	
	다른 남성들이 나를 지나치게 친하게 대하면 그들의 성적 취향이 궁금해진다	-.767	
	나는 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되어 남자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주저한다	-.759	
	다른 남자들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위험하다	-.719	
요인 6. 가장 의무감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881	1.470 (3.972%)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840	
	나는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	.806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 모형적합도 검증

이러한 요인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적합도를 알아보았다. 수차에 걸친 탐색적 요인 분석에 의해 얻어진 요인 구조가 다른 표집에서도 얻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3차 조사(본조사)를 실시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고 적합도를 구하였다. 3차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37문항의 모형 적합도를 구했을 때 적합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RMSEA는 .047로 .05보다 작아 좋은 적합도를 보이며 신뢰구간도 .045에서 .048로 좁다고 할 수 있다. CFI는 .912, NNF .905로 역시 .9가 넘는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RMSEA, CFI, NNFI(TLI) 지수를 보았을 때 앞서 얻은 요인 구조가 새로운 표집에서 다시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검사의 모형 적합도

37문항 CFA	χ^2	df	GFI	NNFI(TLI)	CFI	RMSEA
	3018.723	614	.913	.905	.912	.047(.045-.048)

2) 구인동등성 검증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집단간 구인 동등성을 검증하였다. 집단간 구인 동등성은 개발된 도구의 모형 구조가 모든 집단에서 다른 모형들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인가 하는 형태 동일성과 다양한 집단에서 각 요인이 동일하게 해석되는가 하는 측정 동일성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형태 동일성은 기저 모형 구조가 여러 집단을 거쳐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집단 간 요인부하 패턴의 차이를 본다. 본 검사의 형태 동일성 검증을 위해 조사대상을 40세 전후의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는 성별 역할 갈등 점수의 집단 평균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20, 30대와 40, 50, 60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쟁모형은 4요인과 5요인으로 설정하였다. 4요인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본 검사의 모델이 되는 오닐의 GRCS가 4요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요인 모형은 가장의무감 요인은 일·가정 양립 갈등 요인으로 남성간의 애정표현 억제 요인은 감정표현 억제 요인으로 묶여서 성공·권력·경쟁/남성우월/일·가정 양립 갈등/감정표현 억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5요인 모형은 남성간의 애정표현 억제 요인이 감정표현 억제 요인으로 묶여서 성공·권력·경쟁/남성우월/가장 의무감/일·가정 양립 갈등/감정표현 억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40세 미만과 40세 이상 집단, 그리고 전체에서 6요인 모형이 카이값, 자유도, RMSEA값은 가장 작고 NNFI와 CFI값은 가장 커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형태 동일성에서 6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표 3〉 집단별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연령 집단	모형	χ^2	df	NNFI(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19-39세 집단 (N=743)	4요인 모형	3658	623	.729	.746	.081(.078-.084)
	5요인 모형	2778	619	.806	.819	.069(.066-.071)
	6요인 모형	1957	614	.878	.888	.054(.052-.057)
40-88세 집단 (N=1057)	4요인 모형	4276	623	.741	.762	.075(.072-.077)
	5요인 모형	3287	619	.813	.826	.064(.062-.066)
	6요인 모형	2068	614	.897	.905	.047(.045-.050)
전체 집단 (N=1800)	4요인 모형	7272	623	.741	.758	.077(.075-.079)
	5요인 모형	5137	619	.823	.835	.064(.062-.065)
	6요인 모형	3019	614	.905	.912	.047(.045-.048)

다음으로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기저모형(baseline)의 χ^2 값을 측정 동일성 모형의 그것과 비교하여 두 모형의 χ^2 값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하는 것이다. 기저모형의 χ^2 값과 자유도는 형태 동일성 측정 시 비교집단의 χ^2 값과 자유도를 모두 합한 값이다. 측정 동일성 모형은 비교 집단 사이에 각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것이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χ^2 검증결과는 χ^2 의 차이값이 53.722, 자유도 차이 32, $p < .01$ 로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와서 χ^2 검증에 의한 동일성 가정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동일성 검증에서 χ^2 검증은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 검증에서와 마찬가지로 샘플 크기에 따라 값이 커지는 등의 문제를 가진다(Anderson & Gerbing, 1988; Marsh & Grayson, 1990; Steenkamp & Baumgartner, 1998, Hong et al., 2003, 645에서 재인용). 따라서 여기서도 NNFI(TLI)와 RMSEA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요인계수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2의 NNFI, RMSEA 지수가 더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측정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절편 동일성 검증을 시도하였다. 완전 절편 동일성은 두 집단에 걸쳐 모든 문항의 절편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역시 먼저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역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와서 χ^2 검증에 의한

절편 동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시 NNFI(TLI)와 RMSEA를 검토한 결과 NNFI 지수가 약간 나빠졌다. 그런데 절편 동일성은 반드시 완전 절편 동일성, 즉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Bryne, Shavelson, & Muthen, 1989; Steenkam & Baumgartenr, 1998, Hong et al., 2003, 646에서 재인용). 즉, 절편이 동일하지 않은 문항의 동일성 제약을 풀어주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만 절편 동일성 검증을 하는 부분 절편 동일성만 만족시키면 이는 절편 동일성 검증을 만족시킨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안상수 외, 2007)의 제안대로 AMOS의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검토하여 절편이 동일하지 않은 11개 문항의 동일성 제약을 풀어주었다. 그 결과 <표 IV-4>에서 보는 것처럼 χ^2 차이 검증은 유의미하게 나왔으나 부분절편동일성모형의 NNFI와 RMSEA 지수는 측정동일성 모형과 같아 부분 절편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표 4〉 두 집단(40세 미만, 40세 이상) 동일성 검증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NNFI(TLI)	RMSEA (90% 신뢰구간)
모형1: 형태동일성(기저모형)	4025	1228	.889	.036(.034-.037)
모형2: 측정동일성	4080	1259	.891	.035(.034-.037)
모형3: 측정 및 완전절편 동일성	4225	1290	.889	.036(.034-.037)
모형4: 측정 및 부분절편 동일성	4136	1280	.891	.035(.034-.036)

〈표 5〉 두 집단(40세 미만, 40세 이상) χ^2 차이 검증

	χ^2 차이	df 차이	유의도
모형 1과 모형 2	55	31	$p = .006$
모형 2와 모형 3	145	31	$p = .006$
모형 2와 모형 4	56	21	$p = .000$

연령 집단 외에 학력, 경제 계층, 거주 지역, 혼인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해 보았을 때 모든 경우에 있어 구인동등성이 검증되었다. 이는 이 검사 결과가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집단들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모든 집단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수렴타당도

검사의 수렴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 성평등의식 검사(김양희 외, 1999)와 한국형 다면성별의식 조사(안상수 외, 2007)의 하위척도인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차별의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형 성평등의식 검사와의 상관관계는 .505($p=.000$), 적대적 성차별의식과는 .411($p < .01$.)로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6) 준거타당도

준거타당도를 보기 우울, 자존감, 그리고 스트레스(재정, 건강, 부모역할, 결혼 및 애정, 일·직장·학업)와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트레스 전체와의 상관계수가 .296($p < .01$)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우울과 상관관계가 높았는데 상관계수는 .276($p < .01$)이었다. 자존감과는 부적 상관관계 -.166를 보여 갈등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스트레스는 5개의 영역별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재정 스트레스와의 상관계수가 .226($p < .01$)로 가장 높았다. 건강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 관계는 각각 .113($p < .01$), .128($p < .0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기대와는 달리 개발된 성역할갈등 검사가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상관의 크기는 크지 않았다

〈표 6〉 성역할 갈등 검사와 심리 변수와의 상관관계

	성공·권 력·경쟁	남성 우월	가장 의무감	일·가정 양립갈등	감정표 현 억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성역할 갈등 전체
우울	.150**	.178**	-.081**	.221**	.217**	.227**	.276**
자존감	-.018	-.111**	.165**	-.097**	-.208**	-.237**	-.166**
삶의 만족도	.123**	.084**	.082**	.053*	-.040	.180**	.128**
재정 스트레스	.146**	.093**	.005	.231**	.175**	.138**	.226**
건강 스트레스	.035	.022	-.023	.154**	.116**	.088**	.113**
부모역할 스트레스	.080**	.155**	-.246**	.132**	.178**	.283**	.216**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	.077**	.116**	-.123**	.136**	.165**	.119**	.165**
일·직장·학업 스트레스	.028	.123**	-.097**	.087**	.214**	.196**	.171**
전체 스트레스	.106**	.153**	.063**	.271**	.248**	.222**	.296**

** $p < .01$. * $p < .05$.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남성 성역할 검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국 남성 성역할 갈등의 특수성은 한국의 남성성 이데올로기에서 연유한다고 보고 이를 반영한 문항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일반 남성들로부터 한국에서 남성으로 사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서술을 받았고 또한 남성(성)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고 관련 척도의 기존 문항을 반영하였다.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의 개발 결과는 한국 남성의 성역할 규범과 갈등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첫째, 한국 남성 성역할 갈등의 다면성이다.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의 요인은 6개이다. 이 중 4개는 ‘성공·권력·경쟁’, ‘감정표현 억제’, ‘일·가정 양립 갈등’, ‘남성과의 애정 행동 억제’로 오닐의 성역할 갈등 검사의 요인과 공통적이다. 이 외에 오닐의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두 요인을 더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가장의무감’과 ‘남성우월’이다.

오닐이 개발한 검사의 4요인 중 3요인은 검사의 조작적 정의인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고 나머지 1요인인 성공·권력·경쟁은 남성성 이데올로기와 관련되는 것이다. 반면 한국형 성역할 갈등 검사에서는 감정표현 억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그리고 일·가정 양립 갈등은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고 나머지 3요인-성공·권력·경쟁, 가장의무감, 남성우월-은 남성성 이데올로기와 관련된다. 이 중 남성 우월은 또 다른 남성 성역할 갈등 척도인 아이슬러와 스킵모어의 MGRSS의 한 요인인 여성에 대한 복종과 유사하다. 그런데 가장 의무감은 어떤 남성 성역할 검사에서도 없었던 한국형 남성 성역할 검사만의 고유한 요인이다.

이처럼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는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요소들과 남성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요소들을 하위 요인들로서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한국 남성에게는 여성과의 차별화와 함께 남성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것이 남성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한다. 한국에서의 남성

이데올로기는 대단히 강력한 힘을 발하고 있다. 특히 남성이 강하고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것, 여성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집안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국의 남성 이데올로기의 중심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성역할 갈등검사에서 독특하게 나타난 요인인 가장 의무감은 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경제적 부양과 리더십의 의무, 그리고 나아가 가족을 위한 희생의식까지를 포함한다. 한국형 검사에서 이 요인이 나타난 것은 한국에서 남자의 역할 중에 가장으로서의 역할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가부장제도가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요인과 준거 변수와의 상관관계이다. 다른 요인들이 모두 우울 및 스트레스와 정의 상관관계(갈등이 높을수록 우울, 스트레스를 높임), 자존감과 부의 상관관계(갈등이 높을수록 자존감을 낮춤)를 보이는 반면 이 가장 의무감 요인은 반대로 우울과는 부의 관계, 자존감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스트레스 전체와는 약한 정적 상관관계(.063, $p < .01$)를 보였지만 개별적 스트레스 중 부모 역할 스트레스,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 그리고 일·직장·학업 스트레스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시 말해 다른 요인들과는 달리 자존감을 높여주고 우울과 스트레스를 낮추어 남성의 심리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장 의무감이 남성으로 하여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고 자신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강박감을 주어 남성을 억압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실제로 자신의 삶에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가족과의 애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국형 남성 성역할 검사의 다른 특징은 남성 성역할 갈등이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상관의 크기는 .128로 작지만 유의미하고 요인별로도 감정 표현 억제를 제외하고 모든 요인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기대와는 다른 결과이다. 외국에서는 남성 성역할 갈등과 삶의 만족도를 연관시킨 연구는 많지 않았으나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공·권력·경쟁 갈등이 높을수록 은퇴 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이 나타났다. (Lontz, 2000).

이처럼 한국 문화에서는 남성 성역할 갈등이 반드시 심리적 역기능을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역시 한국의 남성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한국 사회에서 남성성 이데올로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의 남성성 이데올로기는 남자답게 사는 방식에 대해 대단히 엄격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언어에는 “남자니까, 남자다운, 남자면서 ...” 등등의 조건부가 자주 등장한다. 남자가 왜 우느냐는 등 남성성의 조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남성들은 주변의 지탄을 받게 되고 스스로의 자존감에도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반면에 남성 성역할 갈등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이상적인 남성성에게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이므로 이의 성취와 관련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추론은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긍정적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는 오히려 한국 남성이 과도한 성역할 규범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성역할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성역할 갈등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 가장 의무감 요인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 스트레스를 낮춘다는 면에서 성역할 갈등의 다른 요인들과는 구분이 필요하다. 가장 의무감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은 이것이 남성성 이데올로기를 만족시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성취감의 동인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가장 의무감을 계속 성역할 갈등의 하위 개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반면에 가장 의무감이 비록 심리적 역기능을 하지는 않더라도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건강을 해치거나 가족 내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 가족 밖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어 앞에서 서술한 오늘의 ‘자신과 타인의 삶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성역할 갈등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과 가장 의무감 요인과의 관계를 더 치밀하게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 및 이론에 기반한 성역할 갈등 요소들과 한국인의 경험에 기반한 성역할 갈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에서는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변안한 경우와는 달리 한국 남성의 경험을 보다 더 반영하려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남성 성역할 역기능의 기본 요소로 알려진 여성성에 대한 공포와 남성성 이데올로기의 두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남성 성역할의 역기능적 측면과 관련한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어온 성역할갈등척도와 성역할스트레스척도가 두 요소 중 어느 한 측면만을 주로 반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는 성역할 갈등의 내면화가 어느 정도까지는 심리적으로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한국 남성이 역기능적 성역할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함의를 얻은 점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역기능적 성역할에 집착하고 있는 한국 남성을 돕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먼저 이론 논의에서 일부 한국에서의 연구 성과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의 선행 연구와 이론을 주로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 성역할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아직 서구의 개념을 빌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남성 성역할의 역기능에 대한 보다 다양한 시각을 다루고 있지 못하였다는 점은 이 연구의 이론적 근거와 관련하여 중요한 제한점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첫 번째 제한점으로 인하여 한국 남성 성역할의 역기능을 잘 반영하는 준거를 찾지 못한 채 주로 서구의 연구를 바탕으로 심리 역기능 관련 준거 변인을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효과 크기는 높지 않은 준거 타당도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 남성의 역기능적 남성 성역할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준거 탐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양희 · 정경아(1999).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지현 외(2003). 한국어 성역할 갈등 척도(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 K-GRCS)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4(3). 25~41.
- 박노자(2010). 씩씩한 남자 만들기. 서울; 푸른역사.
- 안상수 외(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수애 · 조은경(2002). 남성 성역할이 우리나라 남성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77~103.
- 윤진 외(1987).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의 스트레스와의 관계(I) -남성스트레스 척도 개발과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4(2). 70~83.
- 이수연 외(2009). 『남성의 균형적 삶을 위한 젠더의식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점구, 이민규(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1(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 A PRELIMINARY STUDY)",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437-445.
-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82~92.
- 최희철 외(2009). 남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기본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0(2). 1229~1243.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Eisler, R. M., & Skidmore, J. R. (1987).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Scale development and component factors in the appraisal of

- stressful situation. *Behavior Modification*, 11(2), 123~136.
- Levant, R. F., & Pollack, W. S. (1995). *A New Psychology of Men*. Basic Books.
- Lontz, M. Q. (2000). The male gender and gender role conflict in relationship to well-being in retired adult m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2000).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1, 2606.
- O'Neil, J. M., Helms, B. J., Gable, R. K., David, L., & Wrightsman, L. S. (1986) Gender-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 14, 335~350.
- Pleck, J. H. (1981). *The myth of masculinity*. Cambridge, MA: MIT Press.

Abstract

Development of Korean 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Lee Soo-yeon* · Kim In-soon** · Kim Ji-hyun*** · Kim Jin-ah****

Male gender role is known to cause psychological dysfunctions such as depression, stresses, and low self-esteem. Therefore, it is required to assess the degree of Korean men's gender role conflict and its correlation with the psychological dysfunctions. For this purpose, we developed the Korean 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and using this scal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le gender role conflict and depression, stresses and self-esteem. The Korean 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is constituted with 37 items and has six factors such as male superiority(28.2%), work and family relation(9.0%), success, power, competition(7.7%), restrictive emotionality(6.4%), family head responsibility(4.8%), restrictive affectionate behavior between men(3.9%). All six factors explain 60.2% of the total variance. As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es show, Korean male gender role conflict i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all the psychological variables mentioned above. Stress is most strongly correlated at the level of .296($p < .01$) and depression is correlated at .276($p < .01$). Self-esteem is negatively correlated at the level of -.166. Among stresses, financial stress is most strongly correlated at the level of .226($p < .01$) and health stress is least strongly correlated at .128($p < .01$).

The unexpected results are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ale

* Senior Research Fellow, KWDI

** Senior Researcher, KWDI

*** Professor, Hongik University

**** Research Assistant, KWDI

gender role conflict and satisfaction with life(.113, $p < .01$) and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family head responsibility and psychological dysfunction factors such as depression(-.081, $p < .01$), self-esteem (.165, $p < .01$), satisfaction with life(.082, $p < .01$), parental stress(-.246, $p < .01$), marriage stress(-.123, $p < .01$), work stress(-.097, $p < .01$). However, these results should be interpreted not as a proof for a positive function of male gender role conflict in Korea but as an excessiveness of Korean masculinity ideology which forces men to accommodate the gender norms to achieve satisfaction with life.

Key words: 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Korean

